

# 월간더문화 세 번째 주인공 '신박듀오'

# '전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사전 공청회

문화공간 이룸서 26일 세계적 피아노 듀오 신미정·박상욱 공연

사단법인 더문화의 '2022 월간더문화'가 지난 5~6월에 이어, 이달 26일 '신박듀오'의 연주로 세 번째 문을 연다.

2022 월간더문화는 사단법인 더문화가 2022년에 새롭게 기획한 올해의 주력 프로젝트로,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문화공간 이룸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매월 다른 주제와 아티스트로 다채롭고 활기찬 공연을 꾸린다고 한다.

또한 전북에서 만나보기 힘든 세계적 명성의 예술가들과 도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열린 음악회임과 동시에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다 함께 관객이 되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써 도내 관광 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달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성공리에 마무리된 6월의 월간더문화는 5월에 이어 6월에도 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과 첼리스트 최현영의 완벽한 연주로 문화공간이룸에 열광의 꽃을 피웠다. 그 뒤를 이어, 세계적인 피아노 듀오 '신박 듀오'가 2022 월간더문화의 7월 공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박듀오(PianoDuo ShinPark)는 유럽을 기반으로 주요 페스티벌 무대에서 현지 언론의 호평을 받으며 세계 음악계에 새로운 피아노 역사를 쓰고 있는 피아노 듀오이다.

음악과 예술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에 거주하며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히 활동 중인 피아노 듀오 신박은 이미 솔리스트로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두 피아니스트, 신미정과 박상욱이 만나 결성했다.

결성한 지 몇 해 되지 않아 참가하는 국제 콩쿠르마다 연이어 석권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아노 듀오는 물론, 매년 약 40회의 연주 활동을 하며 전 세계 음악계에 유명 피아노 듀오 연주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현재 피아노 듀오 신박은 리사이틀 무대 뿐만 아니라 협연자로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



'2022 월간더문화' 7월 신박듀오

다. 독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슬로바키아 필하모니, 폴란드 그단스크 발틱필하모니, 모나코 몬테 카를로 필하모니, 독일 북독일 교향악단 등 유럽의 유수 교향악단들과 협연해 오고 있으며 해외연주뿐 아니라 서울스프링실내악 페스티벌, 경기실내악 페스티벌, 피스 앤 피아노 페스티벌 등 국내에서의 주요 페스티벌 등에서 활발히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신박듀오'의 7월 월간더문화 공연에서는 슈베르트, 모차르트, 생상, 리스트의 포핸즈 곡들을 통해 더욱 풍부한 피아노 연주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7월 이후에도 2022 월간더문화로 만날 수 있는 아티스트는 여럿 있다. 8월에는 월간(음악추천)가 선정한 '21세기 한국을 빛낼 젊은 연주자 23인'에 이름을 올린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웅', 9월에는 최정상 성악가들의 합창과

그룹 '크레도', 10월에는 EBS 세계테마기행에 출연한 바 있는 실력과 메조소프라노 '장은', 11월에는 바리톤 '박흥우'와 피아니스트 '이영신'이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한 자리에서 전곡 감상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며, 12월에는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다채로운 송년 밤 콘서트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더문화는 2020년 8월 설립되었으며 도내 지역민과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기획과 참여로 지역의 예술가들의 활동과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창조,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사단법인 더문화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인 2022 월간더문화를 통해 도내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도민과 지역민들이 더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고 더 다양한 양질의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1회성으로 스쳐 지나가는 행사가 아닌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음악회를 개최, 즉 지속가능한 성장지적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관객이 문화 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는 더 많은 무대와 연주의 기회를 부여하여 도내 예술인들이 서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은 무대 공연 기회로 인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일자리 창출 및 예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윤정 사단법인 더문화 이사장은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문화예술계가 점점 활기를 띠고 있다. 이 반가운 소식과 더불어 전주시민들이 기다리는 세계적인 듀오 연주자 '신박듀오'의 공연을 올릴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공연인 만큼 코로나19 이전에 즐겼던 문화가 있는 삶을 다시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원·복지정책 마련 위한 기초자료 구축 위해 시행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5일 5층 대회의실에서 '전북도 예술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예술인 대상 사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전체 예술인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는 전라북도 예술인 실태조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예술인 지원정책과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시행되는 조사다. 이번 조사의 과업은 크게 '전라북도 예술인 현황 DB 구축', '예술인 창작 여건 실태조사',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 말부터 본격 시작된다.

의견수렴 대상은 전라북도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예술인이다. 이번 현장공청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술인들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다.

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 류상록 본부장은 "전라북도 전체 예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첫 예술인 실태조사인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예술인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만들고자 한다"며, 실태조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5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여름방학 청소년 국악강좌 수강생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악교육프로그램인 <탄탄창극교실>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탄탄창극교실은 어린이들이 창극과 판소리에 대해 배우고 직접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국악교육프로그램으로, 판소리 <흥부가>의 주요 눈대목과 전래놀이, 소고춤 등을 배워보며 <흥부전> 공연을 위한 연습 등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협동심, 표현력 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수강 대상은 초등 1학년~6학년(10년생~15년생)으로 정원은 20명으로 수강료는 5만원이며, 운영은 8월 1~5일, 8~12일 오후 2시~5시에 10일간 운영하고, 교육 장소는 남원시 지리산소극장(남원시립도서관 4층)이다.

교육의 마지막날인 8월 13일 오후 3시에는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보는 어린이 창극 <흥부전> 공연을 위한 연습 등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협동심, 표현력 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재즈인물대백과사전' 공연

현대음악발전협의회, 전북문화관광재단 소극장 지원사업 선정으로 공연 시작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2022 소극장(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현대음악발전협의회가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재즈인물대백과사전' 공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극장(소공연장) 지원사업은 창작 기반 구축 및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으로, 올해는 우진문화재단, 문화공간이룸, 창작소극장, 현대음악발전협의회, 극단사람세상, 예술공간 등 총 6

개 단체가 선정됐다.

이번 지원사업 선정 단체는 사업 기간 중 최소 30번의 공연을 진행하게 되며, 전주, 군산, 김제 일대에서 풍성한 소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소극장(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처음 선정된 현대음악발전협의회는 재즈보컬리스트인 김주환 대표가 심혈을 기울여 설립한 소공연장 '더 바인홀'에서 관객 친화적인 고품격 재즈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재즈인물대백과사전은 오는 11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공휴일 제외) 공연한다.

재단 관계자는 "접근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현대음악발전협의회가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 공연을 통해 도내의 소극장(소공연장) 문화의 활성화와 재즈의 대중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공연은 유료로 진행되며, 예매 및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 '더바인홀'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최초 전시지원 프로젝트 '장광문 사진전'

전북문화관광재단은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전북예술회관 지하 1층 특별전시실에서 장광문 첫 개인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단에서는 도내 시각 분야 신진·경력단절 예술가의 예술계 진입을 위한 지원과 시각 분야 예술 활동의 기회 제공 및 재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최초 전시지원 프로젝트'를 무료 대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광문 작가는 "당신만 바라보다 라는 해바라기의 꽃말처럼,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장광문 해바라기

(063-230-741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